



# 글로벌 관점에서 본 보험 M&A 현황 및 전망

김진억 수석담당역

## 요약

■ 최근 글로벌 보험산업에 있어 고성장시장 진출, 규제 변화 대응 등으로 인한 M&A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. 이러한 추세는 국내 보험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될 것임.

■ 2015년 보험산업의 M&A 활동은 거래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음.

- 2015년 글로벌 보험산업의 M&A 거래규모<sup>1)</sup>는 1,110억 달러로 전년대비 73% 급증함.
  - 최종 거래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형거래(mega deals)가 10건으로 전체의 67%(740억 달러)를 차지하며, 구매자가 일본인 경우가 5건, 중국인 경우가 1건임.

■ 2015년 글로벌 보험산업의 M&A 활동을 이끈 주요 동인은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의 진출,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, 경영 효율화와 집중 및 역량 강화 등에 있었음.<sup>2)</sup>

- 인구 및 중산층 증가와 같은 긍정적 인구 변화와 특히 금융서비스 성장에 유리한 모바일 기술 채택 증가로 성장성이 높은 아프리카 보험시장에 대한 진출이 증가함.
- 규제 변화(특히, 유럽 솔벤시 II 시행)에 대한 대응, 경영 효율화 및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 보험회사의 M&A 거래가 증가함.
  - 미국의 오바마케어법,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 상향과 같은 우호적 규제 변화도 글로벌 M&A의 촉매역할을 함.
- 미국에서는 마진 압력이 지속되면서 규모와 역량 강화 목적의 손해보험사 M&A가 증가함.
- 한편, 투자다각화 목적으로 아시아 특히 일본과 중국 보험회사가 유럽과 미국 같은 성숙시장에 투자하는 대규모 역거래(reverse deals)가 활발했음.

1) Ernst & Young(2016. 2), "Global insurance M&A themes 2016".

2) KPMG(2016. 1), "Insurance M&A trends: A year in review and predictions for 2016".

■ 2016년에도 글로벌 M&A 활동은 자산포트폴리오 합리화, 성장 추구, 전략적 제휴, 투자 수단 다양화 등 전략적 동기에 힘입어 증가될 것임.

-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, 경쟁 심화,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인해 비용 절감과 자산포트폴리오를 합리화 하기 위한 M&A 활동이 지속될 것임.
  - 특히, 유럽의 경우 솔벤시 II 시행으로 인해 비핵심·저성과 사업 등이 매각 또는 폐쇄될 것임.
- 핵심시장에서는 글로벌 사업 확장, 보험인수능력 강화 등 성장을 위한 M&A가 나타날 것임.
- 고성장 보험시장(사하라 이남 아프리카, 아시아, 라틴아메리카 등)의 경우도 M&A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.

■ 또한, 보다 효율적인 경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와 파트너십 체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선진국(미국, 유럽)의 자본요건 강화<sup>3)</sup>로 인해 기존 보험사업 모형의 단순화를 위한 보험사업의 매각과 파트너십 체결이 활발해질 것임.
- 비전통적 채널과 고객접점을 위한 기술에 중점을 둔 핀테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, 구글과 아마존 같은 다량의 고객데이터와 신뢰받는 브랜드를 보유한 인터넷 기업과의 제휴가 증가될 전망이다.

■ 한편, 보험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해 특히 국경 간 투자거래가 증가할 것임.

- 일본의 유럽시장 투자, 중국의 유럽 및 미국시장 투자 등 성숙시장에 대한 역거래와 미국과 영국의 원수 손해보험사 및 재보험사 간의 투자가 새롭게 패턴화될 전망이다.

■ 글로벌 보험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M&A 활동은 향후에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, 국내 보험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- 글로벌 보험산업의 M&A 활동을 증가시키는 동인은 국내 보험산업도 공유하는 만큼 보험회사들은 향후 보험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임. [kiri](#)

3) Deloitte(2016. 3), “2016 Insurance M&A Outlook: A year of continuing exuberance”.